

# 기초간호과학 수업에서 액션러닝 적용 사례연구 : 성찰일지 내용분석 중심으로

주은경  
케이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 Case Study on application of Action Learning in Basic Nursing Science: by Contents Analysis of the Reflection Journals

Eun-Kyung Joo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KC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기초간호과학 수업에 적합한 액션러닝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한 후 간호학생의 교육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S시 소재 K대학의 간호학과에서 기초간호과학 수업에 참여한 학생 100명이었고 자료수집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기초간호과학 수업은 팀 당 5-6명, 총 18개 팀이 액션러닝을 진행하였고, 수업 후 성찰일지를 수집한 후 내용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액션러닝 기반 기초간호과학 수업에 대한 경험은 45개의 의미 있는 진술과 8개의 주제,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고, 4개의 범주는 「해부학에 대한 자신감」, 「성장하는 팀워크」, 「학습법을 터득함」, 「진행과정의 어려움」 이었다. 액션러닝 적용 수업은 문제해결능력, 팀워크, 자기 주도적 학습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간호학 교과목에서도 액션러닝을 적용하여 효과를 평가해 볼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액션러닝, 간호학생, 내용분석, 사례연구, 기초간호과학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after designing an action learning class suitable for basic nursing science class and applying it. A total 100 freshmen nursing students taking a basic nursing science class of K university in S c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May 2019 to June 2020. The action learning class consisted of 5-6 people per team, a total of 9 teams, reflection diar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of Krippendorff (2004). The analysis produced 45 significant statements in total, 8 themes and 4 categories for the experience of basic nursing science class based on action learning. The 4 categories were 'confidence in anatomy', 'growing teamwork', 'learned how to study', 'difficulties in the process'. The action learning applied class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problem-solving ability, teamwork, and self-directed learning. Therefore, it is propo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action learning in other nursing subjects as well.

Key Words : Action Learning, Nursing Student, Content Analysis, Case Study, Basic Nursing Science

\*This paper is resulted from the KC University research support program in 2021.

\*Corresponding Author : Eun-Kyung Joo(ekjoo@kcu.ac.kr)

Received June 16, 2021

Accepted August 20, 2021

Revised July 8, 2021

Published August 28, 2021

## 1. 서론

최근 저출산, 인구 고령화 사회, 의료기술 발달, 질병 양상 변화 등 의료환경의 변화로 건강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간호사의 전문적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간호 서비스 제공 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 노인 복지시설 등으로 넓어지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1]. 이러한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높은 사고력과 상황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간호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2].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방법은 이론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의 사고력, 이해력, 창의력을 높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3].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교육에서 획일적인 주입식 강의를 탈피하여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교수법들이 시도되고 있다[4].

이 중 액션러닝은 실존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액션이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조직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역량의 개발될 수 있다[5]. 학습자들은 팀을 구성하여 실제 문제를 찾아내고 러닝코치와 함께 주어진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식 습득, 질문하기, 피드백, 성찰 등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 액션러닝에서 교수자는 코치의 역할을 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세스에 따른 진행을 맡으며 전체 진행의 설계와 조력자 역할을 한다[6]. 액션러닝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높은 사고력 함양과 임상 상황 판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으로, 간호학생이 실제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뿐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협동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이다[7],[8].

기초간호과학은 간호 전공기초 교과목으로,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로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간호과학1의 경우 인체 해부학을 다루고 있는데, 인체의 각 계통별 정상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주위 계통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임상, 기초의학, 간호학의 여러 교과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초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간호과학(해부학)은 주로 간호학과 1학년 교과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해부학의 특성 상 내용과 범위가 방대하고 낮은 의학용어가 산재해 있어 수업

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이 매우 크다. 이에, 해부학의 교육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간호학과 교수들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하고 있으나 교육효과 면에서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9].

임상 간호관리자의 간호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액션러닝을 도입한 후[10], 간호관리학실습에서 액션러닝 수업이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확인하였고[11], 여성건강간호학실습[12]에서 액션러닝이 간호과정 수업보다 문제해결능력에서 더 높은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5]. 그러나 아직까지 액션러닝 수업은 보편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구체적인 실제 운영된 수업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13]. 특히 간호학 수업 중 이론 교과목에서 구체적으로 액션러닝의 방법론적 특성이나 교육 효과에 대한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간호과학 수업에 적합한 액션러닝 수업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간호교육에서 액션러닝 활용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 액션러닝을 활용한 기초간호과학 수업을 통해 얻은 학습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로 어떠한 현상에 포함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연구방법이다[14].

###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서울지역 K 대학 기초간호과학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간호학과 1학년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한 학생이다. 기초간호과학 수업 중 액션러닝이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로 일개 간호학과의 기초간호과학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전체 학생이 대상이 되었다. 동일한 액션러닝 수업이 시행되기 위해 액션러닝 교수법을 이수한 교수가 2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의 액션러닝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2019년 1학년 47명과 2020년 53명으로 총 10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여학생 85명, 남학생 15명이었다. 액션러닝 수업의 신

되도록 위해 액션러닝 교수법 훈련을 받은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였고, 액션러닝 전문가 2인에게 본 교과목에서 설정한 액션러닝 기반 강의계획 전반에 대한 검수를 받았다.

### 2.3 연구 진행절차

#### 2.3.1 액션러닝 수업설계

본 연구는 박수홍의 ‘체계적 액션러닝’ 모델을 통합한 액션러닝 교수설계를 적용하였다[15]. 본 연구에서는 이론 교과목인 기초간호과학(해부학)에 액션러닝을 적용하였다. 이 교과목은 인체의 각 계통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는 가운데 어려운 의학용어, 인체 구조 등을 많이 다루므로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은 용어부터 생소하여 단기간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학습자 참여방식으로 해당 주제의 인체 계통을 조원들이 함께 그림으로 익힌 후 토론, 멀티미디어 활용, 개념도 작성, ppt 개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총 15주 수업 중 3주, 4주, 5주, 6주, 7주, 9주, 10주, 11주, 12주 등 총 9주 동안 액션러닝을 진행하였다. 본 과목은 3학점으로 매주 3차시 수업 중 1차시는 해당 조의 액션러닝 발표, 2차시와 3차시는 강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2.3.2 액션러닝 수업운영

본 연구에서 설계한 액션러닝 수업은 사전준비, 문제(과제) 정의, 문제해결 방안 모색, 문제해결 실행, 평가 및 성찰 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1-2주에 사전준비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교과목 소개와 액션러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한 후 Marquardt[6]가 제안한 5~6명을 랜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팀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총 18개팀(9개팀씩 2년)을 구성하였다. 팀의 실행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팀장을 선정하고, 팀명,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다.

2단계는 문제 정의 단계로 팀별로 해부학 각 계통을 정하고 해당 계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조별 회의를 거쳐 최종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러닝코치의 역할을 하였으며 과제에 대한 조인과 격려,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팀별로 맡겨진 인체 계통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팀이 해결해야 하는 실제적인 문제로 보았다. 교수자는 러닝코치로서 팀별로 해부학 각 계통에 대한 문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된 주제는 “골격계통”, “관절계통”, “근육계통”, “심혈관계”, “비뇨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내분비계”, “생식기계”의 총 9개였고 팀별로 맡은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정의하도록 하였다.

3단계는 문제해결 방안 모색 단계이다. 팀별로 과제에 해당하는 주차 2~3주 전 여러 차례 팀별 모임을 통해 팀별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였다.

4단계는 문제해결 실행단계로, 해당 계통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팀원이 모두 참여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료수집, 토론, 학습한 후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자료는 팀별로 해당 주차에 발표하도록 하였다. 14주차에는 전체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클레이도우를 이용하여 팀별로 맡은 인체계통의 기관들을 만들고 이를 팀별로 완성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5단계는 평가 및 성찰 단계로, 팀별 발표 후 팀원이 각자 액션러닝을 통해 느낀 점과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발표한 후 교수자와 다른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이후 팀별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실행에 필요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액션러닝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에 대해 팀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해 팀원이 모두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차시별 수업시간은 각각 150분이었으며, 진행방식은 액션러닝 관련 활동 팀별 발표 및 피드백 50분, 주차별 강의 내용 100분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액션러닝 수업계획 및 절차에 대하여 액션러닝 전문가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아 확정하였다.



Fig. 1. Actopn Learning Process

###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액션러닝 기반 기초간호과학 수업 전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후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학생들을 참여자로 선정하고 일반적 특성 자료를 수집하였고, 액션러닝 활동 후 액션러닝을 통해 느낀 점, 알게 된 점,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팀활동 소감에 대해 A4 용지 1~2장 분량의 성찰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100명 전체 학생이 성찰일지를 제출하였다.

##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액션러닝 수업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찰일지에 대한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텍스트 자료들이 생성된 상황 혹은 맥락을 바탕으로 해당 텍스트 자료들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유추해내는 연구방법이다. 면담이나 질문지, 성찰일지 등에서 수집된 내용을 기술하고 범주화하여 내용을 조사하는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16].

먼저, 내용분석을 위해 학생들이 제출한 성찰일지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술된 내용 또는 문장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의미 있는 진술 중 유사한 것들을 분류하여 주제(theme)로 개념화하였고, 다시 주제별로 유사한 영역을 묶어 범주화(categorizing)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전문가 2인이 함께 성찰일지를 읽고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범주화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도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 2.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교과목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절차, 자료수집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구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 개인정보 삭제 및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와 중단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성적에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할 것이며, 연구 종료 후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대상자 인식은 숫자로 표시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85%이었고, 나이는 평균 20.4세였다. 졸업한 고등학교는 인문계가 92.0%였고 수업에서 다양한 교수법 적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6.1%로 나타났다.

## 3.2 액션러닝 수업 경험

기초간호과학의 액션러닝 수업 경험에 관해 내용분석

을 한 결과, 진술 내용 238개 중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총 45개의 의미 있는 진술과 8개의 주제, 4개의 범주도출되었다. 확인된 범주는 「해부학에 대한 자신감」, 「성장하는 팀워크」, 「학습법을 터득함」, 「진행과정의 어려움」의 4가지로 분류되었다(Table 1).

Table 1. Experience of Action Learning Class

Category	Theme	N	%
confidence in anatomy	friendly anatomy	31	12.8
	courage to face	28	11.8
growing teamwork	strong teamwork	41	17.3
	bumping into and understanding	20	8.5
learned how to study	Self-directed learning gained through hard work	39	15.9
	Enhanced Creativity	24	10.3
difficulties in the process	Unfamiliar content and burden	33	14.1
	difficult division of roles	22	9.3
	total	238	100

### 범주 1. 해부학에 대한 자신감

액션러닝 과정의 체계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혼자서가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주제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수업방법을 체득하는 경험을 하였다. 해부학에 대한 자신감은 ‘친근해진 해부학’, ‘맞서 보는 용기’ 2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 주제1: 친근해진 해부학

성찰일지에서 학생들은 해당 학습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본인이 교수자의 입장이 되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해부학에 대한 자신감과 친근함을 느꼈다.

“액션러닝 수업을 준비 하다보니 해부학이 친근하게 느껴져요. 개념도도 그리고 색깔도 하면서 놀이처럼 공부하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예습을 하니 수업이 무척 기대되고 재밌게 느껴져요.”

#### 주제2: 맞서 보는 용기

의학용어가 생소한 1학년 학생들이 해부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

다. 그러나 액션러닝의 절차를 따라 함으로써 실제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려워하고 겁먹기보다는 부딪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꾸 해보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범주 2. 성장하는 팀워크

액션러닝은 팀 활동이 중요한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학생들은 액션러닝 과정에서 팀의 성공을 위해 각자 책임감 있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장하는 팀워크는 ‘끈끈한 팀워크’, ‘부딪히며 이해하기’의 2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 주제1: 끈끈한 팀워크

학생들은 액션러닝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감사함을 갖게 되었다.

“서로 배려하고 독려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니 서로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혼자 하면 금방 지치는데 같이 해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팀인데 다들 너무 좋아요. 우리 팀원들이 정말 최고예요.”

##### 주제2: 부딪히며 이해하기

액션러닝의 팀 활동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서로 다른 점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시간을 맞추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두려워하고 겁먹기보다는 부딪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꾸 해보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안 맞는 것도 같이 노력하면서 맞추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아요.”

#### 범주 3. 학습법을 터득함

액션러닝은 문제를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학습이다. 학생들은 팀 활동을 통해 액션러닝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 방식을 배우게 되었다. 학습법을 터득함은 ‘노력하며 얻게 된 자기주도학습’, ‘향상된 창의력’의 2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 주제1: 노력하며 얻게 된 자기주도학습

학생들은 액션러닝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주체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되었다.

“연결 관계를 찾아보니 이해가 훨씬 잘되었고 자동으로 이뤄져서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까지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느껴져 뿌듯해요.”

##### 주제2: 향상된 창의력

팀 활동을 통해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경험을 하였다.

“여러 명이 함께 의견을 내다보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자꾸 새로운 의견을 내고 싶어요.”

#### 범주 4. 진행과정의 어려움

학생들은 기초간호과학(해부학)의 분량이 많고 의학용어를 익히기 쉽지 않았으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컸고 팀원들과 역할분담에 어려움을 겪었다. 진행과정의 어려움은 ‘낯선 내용과 부담감’, ‘어려운 역할분담’의 2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 주제1: 낯선 내용과 부담감

액션러닝은 실제 직면한 과제를 다루며 과제 해결과 그 과정의 학습 효과 모두 중요하다. 학생들은 처음 접하는 해부학의 인체 계통의 접근 방법을 고민했고 분량에 대해 큰 부담감을 토로했다.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범위도 넓어 발표 준비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분량이 많은데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 주제2: 어려운 역할분담

팀워크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평한 역할분담과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학생들은 액션러닝 과정에서 각자 역할과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팀원 역할을 분담하고자 노력하였다.

“팀원 수에 비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역할 분담하는 일이 걱정됐어요. 서로 쉬운 부분을 맡고자 했으나 팀원들한테 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점이 좀 어려웠던 거 같아요.”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액션러닝 기반으로 기초간호과학 수업을 설계하고 질적 연구인 내용분석을 통해 액션러닝 수업에 대한 간호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액션러닝 수업에 대한 경험은 45개의 의미 있는 진술과 8개의 주제,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고, 4개의 범주는 「해부학에 대한 자신감」, 「성장하는 팀워크」, 「학습법을 터득함」, 「진행과정의 어려움」이었다. 첫 번째 범주 「해부학에 대한 자신감」은 「친근해진 해부학」, 「맞서 보는 용기」라는 2개의 주제를 통해 도출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2주에서 많게는 4주 동안 팀별로 맡은 해부학 주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부학에 관심이 높아졌고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목이 공부하면 할수록 친근해지고 재미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액션러닝이 실제적 문제로부터 학습이 시작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학습이 진행된다는 선행연구[17], [18]과 일치한다. 홍기철의 연구에서도 액션러닝을 대학 수업에 적용한 후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19].

두 번째 범주 「성장하는 팀워크」는 「끈끈한 팀워크」, 「부딪히며 이해하기」의 2가지 주제에서 도출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간호학과 1학년 신입생이라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만나 액션러닝 활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면서 서로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 액션러닝 과정에서 학습자의 팀 역량이 향상되고 강한 결속력을 지닌 팀으로 변화한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6]. 액션러닝 활동의 상호작용적 팀 토의 및 과제를 완수하는 훈련을 통해 간호학과 학생은 효율적인 보건의료팀 역할을 미리 훈련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20], [21]. 액션러닝 활동 중 팀 활동으로 연구 문제를 함께 발견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원만한 대인관계,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액션러닝 기반 수업은 간호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언급되는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모두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교수 학습방법이다[5].

세 번째 주제모음 「학습법을 터득함」은 「노력하며 얻게 된 주도적 학습」, 「향상된 창의력」의 2가지 주제를 갖는다.

액션러닝 활동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인체 계통의 연결 관계를 찾으며 학습에 집중하면서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훈련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팀원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정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였다. 액션러닝 학습은 교수자의 일방적 수업이 아니라 학습팀이 자기주도 학습을 지향하며, 스스로 학습의 주인이 되어 운영해야 하므로 미래 지향적 리더십이 배양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6]. 이는 액션러닝을 통해 학습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고, 학습방법이 체계화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18]. 액션러닝을 통해 1학년 수업에서부터 학습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면 간호학과 수업에 적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주제모음 「진행과정의 어려움」은 「낮선 내용과 부담감」, 「어려운 역할분담」의 2가지 주제에서 도출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간호학과 입학 후 처음 접하는 해부학 교과목에 접근하기 힘들어했고 낮선 의학용어로 인해 인체 계통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액션러닝 과정에서 새로 만난 팀원들과 역할을 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는 액션러닝 수업이 강의식 수업에 비해 과제가 많고 팀원들과 원활하게 이를 소통해야 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22]. 본 연구에서는 팀 인원을 Marquardt[10]가 적정인원으로 제안한 5~6명으로 구성하였는데, 다양성과 창조성을 촉진하고 무임승차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구성이었다고 사료된다.

임상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능력을 갖춘 실무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중요시 되는 현실에서 액션러닝을 기초간호과학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교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팀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경험을 얻게 된 본 연구결과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얻었으나 교수인 연구자와 학생 관계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액션러닝 기반으로 기초간호과학 수업을 설계하고 질적 연구인 내용분석을 통해 액션러닝 수업에 대한 간호학생의 경험을 확인하였다. 액션러닝을 수업에 적용한 결과, 「해부학에 대한 자신감」, 「성장하는 팀워

크, 「학습법을 터득함」, 「진행과정의 어려움」의 4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핵심역량인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이다. 액션러닝 수업은 간호학생이 임상 간호 실무에서 요구되는 팀워크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수학습법임을 보여주었다. 최근 의료환경의 변화로 전문인력의 다학제적 팀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고 임상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간호학생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법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하다. 액션러닝 기반 기초간호과학 수업 설계는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 리더십 개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효과를 보여 간호 학생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향후 간호학과 다른 교과목 수업에서도 액션러닝을 적용하여 다양한 수업 효과를 탐색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하며, 액션러닝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 러닝코치의 자질과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H. H. Hyun, M. S. Lee & Y. H. Hong(2016). The effect of action learning teaching - learning method applied to nursing students in U c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7(2), 17-30.
- [2] S. E. Choi & E. A. Kim.(2016). Effects of learning activities on application of learning portfolio in nursing management co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6(1), 90-99.  
https://doi.org/10.4040/jkan.2016.46.1.90
- [3] S. O. Kim. & M. S. Kim.(2016). The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on Fundamentals of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107 -119.
- [4] I. S. Park & D. K. Kim.(2009). Effect of TBL on oral prophylaxis education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Dental Health*, 33(1), 125-133.
- [5] Y. H. Kim & H. Y. Kim.(2018). A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o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ducation in South Korea. *J Korean Acad Nurs Adm*, 24(1), 73-84.
- [6] Marquardt, M. J.(2000). *Action learning in action: Transforming problems and people for world-class organizational learning* (H. C. Bong, Trans.). Palo Alto, CA: Davies-Black Publishing.
- [7] S. I. Ko & K. W. Chang.(2014). Cas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ass by action learning.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88, 256-581.
- [8] K. W. Chang, E. H. Koh & S. I. Ko.(2015).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of action learning in school. *The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7(3), 429-455.  
https://doi.org/10.17927/tkjems.2015.27.3.429
- [9] Gordon S Findlater, Fanney Kristmundsdottir, Simon H Parson, & Thomas H Gillingwater (2012). Development of a supported self- directed learning approach for anatomy education. *Anatomical Sciences Education*, 5(2), 114-121.
- [10] K. S. Jang & S. J. Park, Y. J. Choi. (2012). Effects of Action Learning Approaches on Learning Outcomes in Nursing Management Courses. *J Korean Acad Nurs Adm*, 18(4), 442-451.
- [11] Y. M. Kim & Y. H. Kim.(2010).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ction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management. *J Korea Contents Assoc*, 10(6), 313-322.
- [12] J. H. Kim & M. K. Park.(2014). Comparative study on self-leadership, team efficacy, problem solving process and task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response to clinical training.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4), 482-490.  
doi: 10.5977/jkasne.2014.20.4.482]
- [13] S. I. Ko, K. W. Chang. (2014). Cas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ass by Action Learning.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9(6), 256-281.
- [14] J. W. Creswell.(2010).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eoul: Hakjisa.
- [15] S. H. Park, Y. S. Ahn & J. Y. Jung.(2010). *systemic action learning*. Seoul: Hakjisa.
- [16] Krippendorff, K.(2004). *Content analysis*. SAGE Publications CA.
- [17] H. T. Jeong.(2015). Instruction Design Based on Action-Learning in Moral Subject : Focus on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in High School. *The 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36, 101-128.
- [18] S. H. Kim & J. S. Park.(2021). A Study on Intention to Solve the Problem via the Prior Experience of Creativity Programs based on the Action Learning Methodolog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6), 73-83.
- [19] K. C. Hong.(2015). A Case Study on the Action Learning for College Classes.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1(2), 63-89.
- [20] K. S. Chang, E. A. Kim & H. Y. Park.(2015). The Effects of an Evidence-based Nursing Course Using Action Learning o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1), 119-128.
- [21] H. S. Jung & S. H. Moon.(2021). An Analysis of Action Learning Process in Education Programs for Senior Officials, Engineers, Chief Executive Offic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 87-104.*

- [22] J. S. Kim.(2019). Effects of Action Learning Based Nursing Research Cla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3), 1,627 - 1,644.*

주 은 경(Eun-Kyung Joo)

[정회원]



- 1991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이학사)
- 2014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케이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의료과오, 교수법
- E-Mail : ekjoo@kcu.ac.kr